

신앙과 학문의 통합

- 인문과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Integration of Faith and Scholarship

전광식

- I. 기독교 학문운동의 교회적 내지 역사적 배경
- II. 신앙과 학문의 분리론에 대한 논의
 1. 신앙에 대한 학문의 분리론
 2. 학문에 대한 신앙의 분리론
- III. 신앙과 학문의 관계사
- IV. 신앙과 학문의 일반적인 통합 가능성
- V. 신앙과 학문의 기독교 학문적 통합 필수성
- VI. 기독교 학문에서의 신앙과 이성, 그리고 죄의 청산문제
- VII.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주는 의미와 기독교 학문의 본질
- VIII. 기독교 학문의 과제와 기독교인의 지성적 사명

I 기독교 학문운동의 교회적 내지 역사적 배경

1980년대는 한국 기독교 역사가 그 첫 세기를 마감하고 제2세기로 넘어가는 끝맺음과 새출발의 분기점이다. 이 시점의 한국 기독교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신앙적 행위와 교회적 활동을 착수하고 있다. 제1세기에서의 한국 교회의 모습은 그 주안점과 핵심적 활동의 관점에서 조명해 볼 때 크게 두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단계에서는 대중전도와 예배당 건립,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성경공부와 선교에 치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제1세기를 마감하고 80년대 중반의 제2세기에 이르러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활동 내지 현상이 눈에 띄이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향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경향은 봉사적이고 윤리적·문화적 활동인데, 이것은 사랑의 실천과 의식의 변화는 물론 문화 내지 사회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종의 참여운동이다. 그리고 두 번째 경향은 기독교 세계관 내지 학문 운동으로서, 신앙과 삶의 일치,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도 한국 교회는 여전히 전도와 예배당 건립, 선교와 성경공부에 주력하고 있지만 그것에 덧붙여 과거와는 다른 특이한 현상으로 이 두 가지를 거론할 수 있는 것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오늘날까지 근 10여 년 동안 한국 교회는 윤리와 문화운동 세계관과 학문운동을 전개해 왔는데 이런 운동은 과거의 교회적 활동과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이러한 운동이 자유주의적 신앙과 진보주의적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과거 개인구원과 좁은 영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난을 들어온 복음주의적 교회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둘째로 이 운동은 목회자나 교회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고 주로 평신도들에 의해 주도된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경향이 초교파적으로 일어났고, 또 운동의 형태로 발발하게 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기독교 세계관과 학문운동이 복음주의 청년들과 학자들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지녀왔던 신앙과 삶, 신앙과 학문간의 이분법적 논리와 형태에 대한 깊은 자기 반성이 놓여 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신앙과 삶이 통합되고 일치되어 성도의 의식과 가치가 변하고 인생관과 세계관이 철저히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형성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듯이 학문의 영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主)되심을 고백하면서 학문을 하며, 학문체계와 학문행위를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세계관적 원리 위에 철저히 수립하여 바른 학문을 하고자 함인 것이다. 신앙이 삶과 연결되지 않을 때 그것은 죽은 신앙이듯이 학문이 계시와 신앙 위에 세워지지 않을 때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거짓된 학문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는 성경적 진리와 자신들이 고백하는 신조들과 일치되지 않고 상관성이 없는 학문체계와 학문행위를 아무런 내적 갈등이나 반성이 없이 수행해 왔었다. 또 교회는 학리적 사유나 사유체계를 신앙과 무관한 것 내지 비신앙적, 반신앙적인 것으로 치부하면서 학문을 배격하든지, 아니면 학문행위를 수행하되 상기한 바대로 자신의 신앙과 일치되지 않게 수행해 왔다. 그래서 이 기독교 학문운동을 통하여 지성의 영역이 새롭게 되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되어 자기모순과 갈등도 극복함은 물론 나아가 참된 학문을 해 보자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일으키는 이 학문운동은 교회적 배경이나 교회사적 발전 과정에서 우연적으로 파생한 운동이라기보다 기독교자와 기독교도로서는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당위적 운동이라는 데 아무런 이의를 달 수 없는 것이다.

II 신앙과 학문의 분리론에 대한 논의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당위적이고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신앙이란 어떤 세계관적인 성격을 지니고, 학술이란 또 굳이 현금의 학문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어떤 세계관 위에 수립되는 것임이 분명하기에 학문수립에서 신앙적인 것이 근거에 놓이고, 또 놓여야 한다는 점을 확연히 드러난다.

그러나 여기에서 신앙이란 것이 우리의 논의에서처럼 일반적인 신념과 같은 것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성격의 것일 때 서구 사상사에서는 신앙과 학문이 서로를 분리시켜 놓으려는 노력이 많이 있어 왔음을 볼 수 있다. 기독교적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반대하는 논리와 이유는 기독교 쪽과 일반 학문 쪽에서 모두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선 이런 논리를 학문 쪽에서 찾아보면서 동시에 서구 사상사에서 학문이란 어떤 것이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앙에 대한 학문의 분리론

고대 회랍인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손발이 하는 것과 두뇌가 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전자를 *Τεχνη(Techne)*라 하고 후자를 *Επιστημη(Episteme)*라 하였다. 회랍에서 *Episteme*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Thales*에서였는데, 이것은 회랍 뿐만 아니라 서양 정신사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학문이 있기 전에는 인간정신은 신화(*Mythos*)를 가지고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었다. 이런 신화는 인간정신이 공상과 상상을 가지고 만든 유아기적 인간정신의 세계관인데, 외형적으로는 다양한 신(神)들이 주역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그 신들의 세계는 인간 삶의 반영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여튼 신화나 학문은 다같이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해 보자 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결국 같은 취지로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Aristoteles*는 「*Metaphysica*」에서 *Philosophos(φιλοσοφος)*는 *Philomythos(φιλ*

οὐρανός)와 같은 자라고 설파했다. 그리고 그는 이들도 다같이 만유의 원인(α'ιτία)을 궁구한다고 했다. Τεχνη를 가지는 자들은 과정과 방법을 문제삼지만 Επιστημη를 취하는 자들은 원인과 본질을 찾는다는 것이다.

신화(Mythos)와 학문(Logos)은 다같이 인간이 세계를 해석하는 틀이요, 또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물론 전자는 표상과 상상을 통해서, 후자는 학리적 사유를 가지고 한다. 서양 학문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Thales에게서 Mythos에서 Logos에로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에게서는 물론 고대 철학의 전 역사에서 신화적 요소가 깡그리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Thales는 바벨론에서 점성술(astrologia)을 배워와서 신화적인 껍질을 가능한 벗겨내고 천문학(astronomia)을 만들었고, 애굽에서 기하이론과 수리(數理)를 배워와서 Thales공리(公理)같은 여러 수학적 이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학문은 고대 서양에서 Aristoteles 이후에 장족의 발전을 했고, 특히 그의 자연과학적 후계자들이 Alexandria를 중심으로 학파를 형성하여 과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하여튼 서양 정신사에서 Thales에게서 제1차 계몽이 일어났다면, 제2차 계몽은 근세초 르네상스 시절과 계몽주의 시대에 일어났다. Thales적 계몽의 특성은 학문발달이 신화의 구각을 벗어내는 방향으로, 말하자면 탈신화화(脫神話化, Entmythologisierungs-programme)로 나아갔다면, 근세적 계몽은 중세 천주교의 교리적 타율과 교권적 간섭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중세의 제도적인 스콜라 신학은 Thomas Aquinas가 체계화한 바대로 진리의 원천으로 자연의 빛(lumen naturae)과 은총의 빛(lumen gratiae)을 이원적 상하구조 속에서 다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에 해당하는 철학과 일반 학문은 후자에 해당하는 계시와 신학의 시녀(侍女, ancilla) 노릇을 하게 되었고, 그것에 의해 통제당하고 억압당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천주교의 교리와 교권은 일반 학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학문의 영역은 오로지 교리와 신학의 지배 속에서만 자기 위치를 유지하게 되었을 뿐이었고, 인간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학문은 철저히 배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은 악한 유모의 힘을 노쇠하게 했고, '이성'(理性)이란 어린아이도 천 년의 잠에서 깨어나 자율적으로 세계상과 학문을 구성하려고 하게 되었다. 이런 움직임은 르네상스운동과 계몽주의 사상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제2의 계몽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I. Kant는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Beantwortung zur Frage; Was ist Aufklärung?)이라는 소논문에서 계몽이란 인간이 이런 타율적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사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는 계시와 은총을 거부하고 인간이 스스로 경험하고 사유하며 지식의 틀을 구성해 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근세의 철학적이고 자연과학적 사유는 중세 천주교와 그것의 가르침에서 탈피하려는 일종의 세속화(世俗化) 내지 인간화(人間化)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해방에서 인간이성은 학문과 학문관에서 자율성과 고유성을 갖추려고 몸부림쳐 온 것이다. 근세 철학의 양대 갈래인 영국 경험론과 대륙 합리론은 그 인식의 과정에 대한 주안점은 차이가 있지만 '분명하고도 명확한'(clear and distinct) 인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특히 경험론의 F. Bacon에 의하면 이제는 상상적 유치함이나 계시적 타율에 의해 갖는 과거의 지식은 진정한 지식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런 '학문'은 아무런 도움이나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Scientia est potentia'라고 했을 때 그때의 Scientia는 귀납법적 경험적 방법을 통한 명석·분명한 어떤 것이며, 또 진정한 '학문'이란 명칭을 부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런 학문의 구성을 위해서 그는 우리가 '우상'(idola)이라고 불러질 수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 그리고 신념 따위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했다. Descartes의 방법론적 회의도 이런 인간 자율적인 분명하고 명확한 지식을 구성하고자 한 점에서는 같은 류의 것이었다.

이렇게 서양학문사는 인간의 학리적 사유와 지식 구성에서 인간정신이 미숙함에서 비롯되는 신화적 표상이다. 중세적인 고전적 타율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소위 '비신앙적 학문체계'를 구성해 보려고 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학문이 인간중심화되고 인간화되어 갔던

것이다.

학문의 이러한 인간화적 경향은 신학에까지 큰 영향을 주게 되어서 Ludwig Feuerbach에 이르러서는 신도 인간의 투영물이요 신학도 인간학으로 전락되게 되었던 것이다. 또 계몽주의 신학에서 예수전 논쟁을 거쳐 19세기 말의 자유주의 신학에 이르기까지 신앙적 내용 가운데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초월적이고 초합리적인 부분은 다 제거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변질적으로 해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되니 Ritschl 일파에 게서처럼 기독교는 윤리(倫理)만 남게 되든지, 아니면 Troeltsch에 게서처럼 기독교는 본질도 없는 종교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서구 사상사는 이처럼 학문의 순수성과 중립을 위해 신앙과 신앙적인 것을 가능한 한 그것으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했던 것이다. 학문의 학문됨에 있어 서구사상은 적어도 근세 말까지는 무전제(無前堤)와 중립성(中立性)을 그 기반으로 생각하였다. 이 전통에 따르면 진리와 지식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하므로 신앙이나 신념같은 개인적이고 어떤 선험적인 요소가 있을 때 그 타당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학문성도 손상된다는 것이다.

2. 학문에 대한 신앙의 분리론

종교를 ‘절대의존감정’ 내지 ‘의식’이라고 규정한 Schleiermacher는 일반적으로 근세 신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종교와 신앙의 주정주의(主情主義, Emotionalism)를 제창한 그의 사상적 배경에는 본의 아니게 Zinzendorf 일파의 경건주의 운동이 놓여 있다. 이 모라비안 일파는 종교개혁자들이 ‘딱딱한’ 교리주의와 신앙고백주의를 비판하고 가슴의 신앙과 체험적 영성을 강조하며 종교를 개인주의화하면서, 동시에 지성과 학문을 경시 내지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경건주의적 전통과 계몽주의적 신학의 인간화적 전통에 영향을 받은 Schleiermacher는 종교와 신앙을 전적으로 인간감성의 영역으로 축소시켰던 것이다.

그 후 19세기 말의 자유주의 신학은 지성적 기독교를 무시해 온 것은 아

니었지만 신앙과 학문을 분리시켜 왔다. 그들은 신앙이란 감정의 문제요, 개인의 심령을 위한 것이지 진리와 지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 말하자면 그들은 종교적 생활을 개인의 취향 내지 취미생활 정도로 보았다. 우리가 취미생활을 할 때, 이를테면 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가사의 내용이 진리인지 아닌지 전혀 생각지 않고 그저 즐기지만 하듯이 종교도 그렇다는 것이다.

또 오늘날 잘못된 시각을 지니고 있는 보수주의적 신자들 가운데도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이 많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도 주관적 확신의 문제이지 이성적 진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강변한다. 즉, 기독교 진리는 “내가 믿기 때문에” 진리로 인식되는 것이지, 그것이 진정으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런 주장들을 여러 가지 성경적 내지 신학적 배경을 그 기반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이들은 사도 바울이 변론은 피하고 철학의 헛된말을 피하라고 했으므로 기독교에 대해 지적 논쟁이 필요 없다고 한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은 본질적으로 ‘아멘’ 하고 믿고 수납하는 것이지, 이성적 추론이나 변론을 통해서 설득시키고 설득당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런 뜻에서 이런 주장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실패로 끝났다고 한다. 또한 인간의 자연 이성은 전적 타락으로 부패했고 무능하므로 이것으로 하나님의 계시적 진리와 복음에 접근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믿게 하는 이는 성령님이시므로 논쟁은 무익하다고 한다. 또 성경은 믿기만 하면 되지 논의할 대상은 아니라고 하며, 하나님도 섬길 대상이지 그분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불경이라고 본다.

오늘날의 시대정신(Zeitgeist) 가운데 가장 강력한 Post-modernism은 유감스럽게도 기독교회와 신자로 하여금 교리와 신조의 포기과 방치,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의 강조, 감성적 신앙형태의 부각 등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반지성주의에 흐르게 한다. 말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F. Schaeffer의 책명처럼 ‘이성으로부터의 도피’(Escape from reason)를 하게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지성과 이성에서 도피하고 그것을 방치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과 교리적 가르침에 대한 지적 반성과 이성적 사유를 적대시 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불합리하므로 믿는다’는 Tertullian식의 신앙자세와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박는 것’이라는 Kierkegaard식의 논리를 추종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의 지성적인 측면 외에도 기독교인들에게서 신앙과 학문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온 경향도 지금까지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신자’로서의 모습과 ‘학자’ 내지 ‘학도’로서의 모습은 그 믿고 이는 바가 구분되어 있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에서의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면서 학교에서는 무신론이나 인간중심주의를 전제로 한 소위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이론들을 별 갈등없이 수납하고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구원받는 영혼이 바벨탑적인 두뇌를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엄청난 모순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III 신앙과 학문의 관계사(關係史)

서양지성사에서 신앙과 학문의 관계를 논할 때 ‘신앙’이라는 것은 앞에서 도 간단히 언급한 바대로 일반적인 신념이나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적 신앙’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신앙의 실체는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다. 즉 이것은 계시신앙으로서,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신념과 달리 주관성과 임의성이 극복되는 것이다.

서양학문사에는 ‘학문’과 이 ‘기독교적 신앙’이 다양한 관계 속에 있다. 그것들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분리되어 오면서도 또 내면적으로는 상관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학문의 편에서 보면 그것은 계시의 사실을 통하여 자기를 규정한 이성의 역사이다. 말하자면 서구의 학리적 이성은 ratio post christum natum이다.

교부 시대와 중세 시대에는 대체로 각기 플라톤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기초하여 신앙과 지식, 교리와 학문이 통합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어느 편에서 보더라도 후세의 관점에서는 바른 학문도, 또 바른 신앙도 아니었지만 말이다.

Galilei의 주장으로 시작한 근세 학문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수학적 엄밀성과 기하학적 정확성은 지녔다고 주장하는 자연과학과 신학적 진리 간에 긴장과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근세 학문은 과학적 지식을 난공불락의 진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가 참이고 필수적인 자연과학에서는 천 명의 Demosthenes와 천 명의 Aristoteles라도 거저된 것을 사실에 거슬려 참으로 믿을 수 없다.’는 Galilei의 주장에서 이런 근세 과학의 자만심이 잘 드러난다.

이 이후 신앙과 학문간에 다양한 논의들이 분분하게 되었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이 양자를 분리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났다. F. Bacon과 Hobbes같은 이들은 “신앙에 속한 것은 신앙에게, 학문에 속한 것은 학문에게”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Kant는 실천이성(praktische Vernunft)의 우위성을 유지하면서 이 양자를 구분하여 보려고 했다. 그는 “나는 신앙에 자리를 내주기 위해 지식 또한 지양(止揚, aufheben)해야만 했다”(Kritik der reinen Vernunft, B. xxx)고 말했다.

이러한 전통은 대체로 종교비판적인 자세로 내려오게 되었다. 특히 Feuerbach와 Marx, 그리고 Freud에 와서는 지식을 통한 계몽에 있어서 신앙을 완전히 제거함에서 출발한다. 반면 그 이전 Fichte와 Schelling, Hegel 등의 독일관념론의 전통에서는 이 양자간의 화해 내지 중재를 시도한다. Fichte는 ‘신앙 안에서의 지식의 지양’을, Schelling은 ‘지식 안에서의 신앙의 지향’을 말한다. Hegel은 “신앙과 지식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도 하나의 지식이고, 지식의 한 형태”(Enzyklopädie 440, § 554)라고 했다.

거기에 비해 소위 ‘신앙철학자’인 F. H. Jacobi는 “Ein Gott, der gewußt werden konnte, wäre kein Gott”(지식으로 알려지게 되는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오로지 신앙으로만 접근해야 될 것을 말했다.

19세기에는 신앙과 학문을 더욱 더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키에르케 고르나 쇼펜하우어는 신앙과 지식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금세기에 접어들면서 신칸트주의자(Neukantianer)와 개신교 신학자들은 신앙과 학문을 서로 구분하는 데 동의했다. 상호간에 대립은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자세를 고수하였던 것이다.

신앙과 학문간의 이런 평화스러운 상태는 1963년 Heinz Zahrnt가 잘 서술하고 있다. “오늘날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먼 옛날 아브라함과 롯의 목사들처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신앙과 학문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사이 좋게 지내왔다. 서로가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의 목장(신학과 학문이라는)을 잘 지켜왔고 또 목자들 간에는 아무런 분쟁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분리와 불간섭은 공존(共存)의 윤리가 될지는 몰라도 정상적인 것도 타당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학문은 어떠한지 몰라도 적어도 신앙의 입장에서는 학문뿐 아니라 지상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믿고 고백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고백해야 할 영역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금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 양자의 불간섭적 공존은 여러모로 타격을 받고 이 양자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논의의 배경 가운데 한 가지는 학문의 세속화가 가속화되는 것이 있다. 과학의 위력이 확대되고 과신되면서 계몽주의의 전통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고, 이런 등장과 함께 신앙의 영역을 다시금 문제삼게 되었다. 또 Thomas Kuhn 등을 비롯한 여러 학문이론 학자들이 학리적 이성의 근저에 있는 신앙적 내지 세계관적 기초들을 밝혀내게 된 점도 이 양자의 관계에 대한 새 논의의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단락에서 밝힌 것처럼 기독교 학문운동이 전개되므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속에서 이 문제가 재론되게 되었다. 이런 배경들을 통해서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대한 새 논의는 근세의 주류적 경향처럼 이것들이 분리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다. 이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통합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IV. 신앙과 학문의 일반적인 통합가능성

앞서 살핀바 대로 과거의 유럽학계는 대체로 신앙의 세계와 학문의 세계는 아무런 공통분모도 없고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 전통은 신앙을 미신적이고 비계몽적인 것으로 여기고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것으로 치부하게 되었다. 설령 신앙을 얘기한다고 해도 그것을 고작 Kant에게서 보이는 것처럼 '단순한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만을 허용하고자 할 뿐이었다.

서양의 학문전통은 일찍이 F. Bacon이 말한 것처럼 무전제와 중립성을 학문적 정초의 기초적 특성으로 삼았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학문이론도 모든 학문과 학문합에는 어떤 우선(a priority)한 세계관(世界觀) 내지 패러다임(paradigm)같은 어떤 전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인문과학 뿐 아니라 자연과학적 연구에도 어떤 세계관적 동인(動因)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무전제적 중립성(中立性)을 얘기하는 것은 허구요, 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제적인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을 앞서 언급한 바대로 계시적 전제를 가지고 학문을 구성하고 학문활동을 하는 우리 기독교인 학자의 기독교 학문에 상대적 존립성을 인정해주는 결과가 된다.

Max Weber는 세계관이 학문과 문화의 근저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에게 영향받은 Frankfurt 학파의 비판이론 주창자들도 계층이나 계급 내지 이념적 이해관계에 따라 학문이론이 좌우됨을 밝히고 있다.

그에 앞서 Karl Marx도 학문체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반영으로 보았고, 정신분석학자인 Freud는 학문을 무의식의 산물로 보았다. 과학철학에서 Michael Polanyi는 이론 구성에 있어 인격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그리고 누구보다 Paradigm이론을 내세운

Thomas Kuhn은 모든 학문적 체계는 그 시대와 그 집단에 고유한 어떤 패러다임 위에 세워짐을 말하고 하나의 패러다임에서 다른 하나로 전이하는 것은 마치 개종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밖에 오늘날 해석학자들도 대체로 주관성 배제의 불가능을 운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학문의 기초 자체가 어떤 세계관 위에 서 있고, 또 그것의 성격도 중립적일 수 없다고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

기독교 철학의 전통에서도 Hermann Dooyeweerd는 서양사상의 시대마다 어떤 종교적 동인(動因)이 있음을 얘기하면서 이성의 자율성에 대한 주장은 허위임을 지적하였다. 고대에는 형상과 질료, 중세에는 은총과 자연, 근세에는 자연과 자유의 종교적 성격의 동인이 각 시대의 사상과 문화의 근저에 놓여 있고, 또 기독교의 동인은 ‘창조 - 타락 - 구속’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Dooyeweerd는 이성은 서양사상에서 모든 이론을 검증하는 재판관 노릇을 하였지만 그 이성도 자율적이지 못하고 배후의 종교성에 의해 타율적으로 움직인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이성의 자기충족성에 기초해 있는 모든 철학적 사상을 수납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또한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때에도 실제로 대부분의 학문은 종교 내지 신앙과 결부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중세 이래의 학문적 전통은 부정적인 의미에서건 긍정적인 의미에서건 간에 소위 ‘기독교적 이성’ 내지 기독교 정신과 불가분의 관련성 속에서 발전되어 왔던 것이다. 1930년대 불란서 학계에서 Gilson이나 Maritain같은 신토마스주의자들과 Lefevre같은 이들 간에 소위 ‘기독교철학논쟁’의 결론 중 한 가지는 적어도 ‘기독교적 철학’은 다양한 다른 종교 철학처럼 서구사상사에서 하나의 실체라는 것이었다.

그밖에 오늘날의 Post-modernism의 학자들도 Modernism이 주장했던 합리성이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잘 간파하고 있다. “Anything goes”를 외치는 Paul Feyerabend같은 학자는 우주에 대한 합리적 체계를 버리고 신화나 동화로 돌아가자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관점 등을 빌려볼 때 우리는 모든 학문은 그 토대는 출발에

있어 이미 어떤 전체를 가지고 있으며, 또 학리적 이성 자체도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반적인 통합가능성만 가지고 기독교 학문의 정립을 얘기하는 것은 일반 학문 편에서나 또 우리 편에서 모두에게 쉽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토대도 유약한 것이 되고 만다. 우선에 우리가 일반 학문의 논리를 생각해 볼 때 가치중립적인 것이나 전체가 없는 학문과 학문함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편견이나 주관성이 다 학문의 기초가 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어떤 종교적 주장에는 비학문적 내지 반학문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적이고 교리적인 언설에는 어떤 비합리적이고 신비적인, 그리고 독단적인 내용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사실 학문체계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일목정연하고, 또 체계적이어야 인정되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패러다임(Paradigm)의 논리를 가지고 일반 학계에 단순히 기독교 학문의 정립을 설득력있게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우리는 C. Van Til같은 기독교 변증가들이 주장하듯이 그들의 ‘불합리’와 우리의 ‘합리’ 사이에 어떠한 궁극적인 접촉점이 없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일반적 통합가능성의 논리로 기독교 학문의 성립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에도 그 기반이 매우 허약하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에서 보듯이 기독교적인 것의 상대적 인정은 우리에게는 별의미가 없고, 그것은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철학의 자체적 논리에 따라 신앙과 학문간의 통합의 필수성을 얘기해야만 한다.

V. 신앙과 학문의 기독교 학문적 통합 필수성

이제 우리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되어야 할 필수성을 기독교 학문적 내부에서 찾아보면서 그 이유를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선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배격하고, 또 반지성주의로 흐를 때 파생되는 신앙의 형태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 결과로 제일 먼저 오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됨을 상실하는 것이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만 전할 뿐만 아니라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본질, 역사의 과정과 끝에 이르기까지 전우주적 문제들에 대한 궁극적 해답을 제시하므로 전 실재계에 대한 포괄적 진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문적 내용을 간과해 버리면 그것은 성경적 진리를 놓쳐 버리고, 또 선포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깨닫지도 이용하지도 못하고, 또 전하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마는 것이 된다. 두 번째는 신앙과 학문을 분리할 때 우리는 신앙과 지성, 성(聖)과 속(俗)의 이원론적 삶을 살게 되고 통합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즉 ‘신앙 따로, 학문 따로’가 되므로 상호간의 이질성과 상반성 속에 머물면서 그런 모순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 속에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공동적인 진리 체계를 상실하든지 회색시키므로 공동적 관점을 지니지 못하고, 공동체 내에서도 파편화되고 개별화된 지식들만 소지할 뿐이다. 그런 결과는 신앙이 더욱 개인적 경험의 차원으로 축소되고 개인주의화되고 마는 것이다. 네 번째는 지성과 문화의 영역을 포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주권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학문의 영역을 자유주의자 내지 인본주의자들에 게 넘기게 되고 문화의 제반 영역을 양도해 버리고 포기해 버리게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기독교적 학문을 무시하고 지성도 신앙에 분리시키므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변증적이고 선포적인 사명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단과 같은 그릇된 신학에 대한 분별력이 약해지고, 결국 무지 속에서 혼합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교회의 신자에게 다가오는 다양·각색의 비성경적 지성과 비기독교적 학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섯 번째 개인적으로 볼 때 지성과 학문을 신앙에 결부시키지 않을 때 신앙이 Augustine이 말한 것처럼 ‘이해의 단계’로 자라가지 못하게 되고, 또 인격성장에도 감성과 의지적인 측면은 발전을 시키는데, 이성과 지성은 개발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으로 기독교적 학문이 수립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교육을 시키기 어렵게 되어 그들을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작업장에 내던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이유 외에 신앙과 학문을 통합시키는 적극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 즉 기독교 학문수립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의 자명한 뜻에 놓인다. 즉, 성경만이 구원과 삶의 유일한 진리를 가르치며 인간과 세계 이해에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답을 주고, 나아가 학문이라는 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학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진리를 찾고 가르치는 바른 학술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학문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기독교 학문만이 참학문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문 체계적 이유 외에 우리의 학문함에 있어서도 이점은 매우 중요하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성공 고백과 학문함이 이율배반적 구도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믿는 바와 이는 바, 그리고 고백하는 바와 가르치는 바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과 삶 뿐 아니라 모든 문화 영역과 학문 영역에서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는 그런 신앙고백을 해야 한다.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골 3:10)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고백적 학문활동을 해야 하고, 학문분야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나아가 기독교 학문만이 일반 학문이 지니는 단편성과 파편성, 임의성과 피상성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과학은 경험적 관찰과 실험적 증명을 통해 이론을 정립하고 세계를 해석하지만, 그 관찰이나 실험은 우주 내적 존재에서만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석된 세계도 현상계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와 신앙이 없이는 초월적인 영역은 물론 경험·관찰되지 않는 세계의 근원과 궁극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일반 학문은 우주 파악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초월적인 준거점이나 의미의 통합점을 지니지 않고 있다. Dooyeweerd식으로 얘기하면 기독교 학문만이 내재적 학문을 극

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학문은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것이다. 또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서 학문의 바른 목적성취가 실현된다. 오늘날의 학문은 방향성 없는 맹목적 탐구이든지 아니면 자연정복과 인간정복이 힘을 얻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다.

개인이나 집단의 모든 인간사가 인간의 이기적 목적 성취의 과정이나 결과이듯이 일반 학문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본주의 내지 맹목성을 지닌 일반 학문과 달리 기독교 학문연구는 하나님 중심의 학문이 되고 이웃사랑과 하나님 영광의 실현을 위한 목적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학문 목적은 진정성과 영원성 그리고 봉사성을 지녀야 하는데, 그것이 이 기독교 학문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 학문은 인격과 분리되어 전개되지만 기독교 학문은 인격과 분리되지 않는다. 인격과 분리된 학문의 결과는 때로 인간파괴와 반인격적인 것으로 귀결되고 만다.

VI. 기독교 학문에서의 신앙과 이성, 그리고 죄의 청산문제

일반 학문에서는 신앙과 이성을 그 대상이나 성격들에서 엄밀히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앙은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초월적인 것을 다루고, 이성은 어느 정도 실재성과 객관성을 가지면서 사실과 현상적 실재를 다룬다고 한다.

하지만 기독교 학문에서는 신앙과 이성이 하나가 되어,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증생된 이성’, ‘신앙적 이성’이 된다. 그 논거는 다르지만 Kant 철학을 비판한 Joh. G. Hamann이나 Joh. G. Herder, 그리고 F. H. Jacobi 같은 철학자나 C. Van Til 같은 이들에게서는 신앙과 이성, 신앙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이 일치가 된다. Jacobi는 Kant가 한편으로는 물자체(物自體)를 인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물자체의 불가인식성(不可認識性)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물자체의 가정이 없이는 Kant 철학이 성립될 수 없으며 또 물자체의 가

정이 있는 한 Kant 철학은 문제점을 지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참된 철학은 이성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성과 신앙 위에 근거한다고 하면서 소위 신앙철학(Glaubensphilosophie)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는 인간도 오성(Verstand)을 통해 유한하고 조건적인 것을 인식하는데, 그 때 인간은 이방인(Heide)이 된 반면 이성(Vernunft)을 통해서만 신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을 포착하고, 그 때 인간은 그리스도인(Christ)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 ‘이성’이야말로 정서(Gemüt)요, 감성(Gefühl)이요, 신앙(Glaube)이라고 했다. Van Til도 이성이 자기의 인식을 초월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合理的)이라고 함으로서 신앙과 합리성을 조화시키고 있다.

기독교 학문에서 신앙과 이성은 상호 충돌하지 않는다. 우리는 먼저 기독교 학문에서 신앙에는 하나님이나 다른 초월적이고 초합리적 문제가 해당되고, 이성에는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사실이 관계한다는 카톨릭적인 이분법(二分法)을 버려야 한다. 성경적 진리 가운데에도 우선 합리적 사유와 배치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성만으로는 접근이 아니라 신앙이 그 근저에 놓여야 참치식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 학문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 사유만으로는 되지 않고 신앙을 배경으로 한 이해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하여튼 기독교 학문에서는 이성없는 신앙도, 신앙없는 이성도 아닌 ‘신앙적 이성’(intellectus fidei)과 ‘이해적 신앙’이 중요함을 알게 된다. 기독교 학문에서의 신앙과 이성의 이런 합치성 내지 합일성을 좀더 고찰해 보면 신앙은 학문과 학문함의 근거를, 이성은 그 수단과 방편을 이룬다. 하지만 이때의 이성은 지식의 산출적 기능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해석적 인식적 기능을 지닌다.

또 신앙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중생자의 이성을 부단히 통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결론으로 도달할 수 없도록 작용하는 것이다. 신앙도 또한 학문의 독단화와 절대화를 거부하고, 학문이 인간승배로 귀결되는 것을 배격한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 학문은 하나님의 말씀계시인 성경에 대한 신앙에 의해 통제되고 성격지워진 ‘신앙적 이성’에 의해 수립되어진 학문체계인 것이다.

기독교 학문이란 자연인이 회개하고 신앙을 가지고 하는 학문이다. 사실 신앙 속에는 애당초 지성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πιστεω라고 할 때 그 본래의 뜻은 ‘논증에 의해 확증시킨다’는 뜻이다. 신앙의 본질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회개’를 뜻하는 μετανοεω는 이성과 지성을 뜻하는 νοῦς가 바뀌어지고 다르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인간, 세계 등에 대한 자연인으로서의 우리의 지식과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는 방식대로 실재계를 보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신앙과 회개가 없는 자연인은 하나님 중심주의와 객관적 관점에서가 아닌 주관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사고하게 되는 것이다.

Calvin은 「기독교 강요」에서 타락한 이의 이성과 중생한 이의 이것의 문제 등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제1권 15장 등에서는 타락하기 전의 이성의 빛은 인간의 오성과 의지에 바름(rectitudo)만 지배하여 바른 인식(recta intelligentia)을 가지게 되어 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이런 인식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이성능은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이런 인식적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 물론 타락한 이성이라 할지라도 지상의 것을 현상적으로 인식하는 데는 예리하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인간의 본질과 지상의 궁극적인 진리를 아는 데는 완전히 무지하고 맹목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이성능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성경이 없이,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신앙의 빛과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영적 사실에는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능은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능력이 전혀 없다. 인간 이성능은 하나님이 누구며 그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기에 그에게 접근하거나 지향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중생한 이의 이성능은 어떠한가? 이것은 단순히 타락 이전으로 회귀되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 속에서 말씀을 통한 전적인 변화가 온다고 한다. Calvin은 우리의 이성능은 신앙 안에서만 제기능을 한다고 한다. 즉 신앙 안에서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신앙의 인식은 인간이성의 포착능력을 능가하는 것이고 “주님의 학교”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단순한 신앙만 가지면 이성능을 하게 되는가? Calvin은 여기에서 성령과 성경을 얘기한다. 그는 성령이 하나님의 내적 혹은 심령적 도구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외적 도구라 한다. 하나님은 내적으로는 그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외적으로는 그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다고 했다. 그는 성경은 이성이 써야 하는 ‘안경’이라고 생각했다. 이 ‘안경’이 없이 우리는 어떤 영적 진리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한 ‘이성은 내적으로는 신앙을 통하여 성령의 지도를 받고 외적으로는 성경이란 안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급진적인 영성주의자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Calvin은 성경의 권위를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는 성경을 성령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것을 반대한다. 성경을 성령에게서 떼어놓으면 성경문자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역으로 그는 성령 하나님을 성경으로부터도 떼어놓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 때 우리는 열광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의하면 성경은 ‘성령의 학교’, ‘하나님 백성의 학교’이다.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분명한 지식은 오로지 성경말씀 속에만 있다. 이성이 성경의 안경을 쓰는 것도 성령님이 도우셔야 한다. 성령은 인간의 심령에 신앙을 줌으로 성경을 수용케 한다. 그리고 성령도 인간에게 지각의 조명과 심정의 확정을 주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Calvin에게서의 기독교 학문은 성경의 기치 위에 세워져 있으면서도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또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중생한 자의 이성이어야만 한다.

A. Kuyper에 의하면 이런 신앙이야말로 학문함에서의 죄의 영향을 벗겨준다. 그는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 제2부 제2장에서 죄의 이러한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루고 있다. 우리도 Kuyper의 입장과 동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학문함에 있어서의 죄의 심각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죄는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한다. 둘째는

Calvin이 말한 것처럼 죄는 이해력과 인식력을 어두워지게 하며 의식의 변화를 일어나게 한다. 그래서 인간은 상상에 사로잡히게 되고 상상과 실재 간의 혼란이 파생하게 된다. 셋째, 인간은 거짓 심성으로 자기와 타인을 속이게 되고, 넷째, 자연과의 분리로 자연탐구가 바로 되지 않게 되고, 다섯째, 근본적으로 오류와 실수에 빠지게 되면서 자기절대화의 경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여섯째, 실재의 기반과 의미의 궁극점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므로 전 실재계에 대한 포괄적 지식이 없게 된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본질상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그를 사랑하므로써 갖는 인격적 지식인데, 그를 사랑하는 게 없으니 진정한 지식도 없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여덟째로는 같은 주제에 대한 상반된 방법적 연구로 상반된 결론이 나와도 서로 간의 인간관계가 죄로 인해 갈등을 주고 상호 분리되므로 자기아집과 주관만을 독단화하게 된다. 이런 점은 인문과학에서 특히 그러하다.

이러하다 보니 Fayerabend의 주장같은 “Anything goes”같은 얘기가 나오고, 회의론이나 불가지론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로 Post-modernism의 학문이론에서는 회의주의나 상대주의가 가장 논리적인 결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죄는 결국 학문에 있어서 이러한 상대주의와 회의주의 또는 불가지론으로 가므로 여기에서 학문의 진정한 정립은 불가능하게 된다. 진리와 지식을 추구하는 보편적 학문은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상처받고 위기에 처한 학문을 구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Augustine과 Kuyper는 한결같이 그것은 신앙임을 말한다. 기독교인은 신앙으로 이 죄성을 극복하고, 또 신앙이 있더라도 아직도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만을 의존할 때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Kuyper는 이런 신앙을 일반인들이 갖는 ‘형태적’(formal) 신앙과 달리 ‘내용있는’ 신앙이라고 한다. 전자는 인간이 자신과 자신의 판단 등에 대해 갖는 일종의 단순한 믿음 같은 것인데 비해 후자는 하나님과 그의 계시에 대한 신앙이다. 실재의 궁극적인 하나님과 실재에 대한 궁극적 진리를 제시하

는 성경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 바른 학문연구와 학문체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C. Van Til에 의하면 이런 신앙은 도리어 ‘합리적’인 것이다. 그는 인간이성이 자기의 인식을 초월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合理的)이라고 하면서 신앙과 합리성을 조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학문에서 신앙과 이성이 상호충돌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먼저 기독교 학문에서 신앙에는 그야말로 이해는 안되면서 믿어야만 하는 초월적이고 초합리적인 사실이 해당되고, 이성에는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사실이 관계한다는 카톨릭적인 이분법을 버려야 한다.

성경적 진리 가운데에서는 우선 합리적 사유와 배치되지 않는 것이라 할 지라도 이성만으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신앙이 그 근저에 놓여야 참지식이 되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하나도 예외 없이 ‘순종과 신앙의 수납’으로 받아들여야 할 진리인 것이다. 이 때 그 지식은 산지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신앙도 지식의 구성에 있어서 1) 본질적인 내용이나 영적인 진리를 수납하게 하고 2) 진리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인적(全人的)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며 3) 그리고 학문의 목적과 방법이 바르게 되게 한다. 또 신앙은 변증적이고 선도적인 기능에서 1) 학문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장치 노릇을 하며 2) 학문의 독단성, 이데올로기화, 절대화를 거부하고 3) 그리고 학문이 인간을 숭배하고 비인격적, 반인격적, 탈인격적인 것으로 되는 것을 거부한다. 신앙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중생자의 이성을 부단히 통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VII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주는 의미와 기독교 학문의 본질

신앙과 학문이 통합될 때, 즉 기독교적 학문의 정립은 다음과 같은 특성

을 지닌다.

첫째, 기독교 학문은 성경에서 계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실재의 최 종적인 근원, 모든 의미의 진정한 통합점, 그리고 학문의 초월적인 준거점 으로 삼는다. 일반적 학문은 자연이나 인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확실한 조건적이고 궁극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실재계 내부의 현상적인 상호관계나 논리 정도를 피상적으로 알 뿐인 것이다. 그러면 일반 학문은 실재계 파악에 있어 어떤 초월적 준거점이나 의미의 통합점을 전혀 지니지 않고 있는가? 많은 경우 그들도 그런 것을 지니고 있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것들은 진정한 준거점이나 통합점이 아니고 상상되고 측정되고, 인위적으로 꼬집어들인 거짓된 궁극적인 것이다.

둘째, 기독교 학문은 성경을 액면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축자영 감설적인 바른 성경관에서 시작된다. 그릇된 학문은 그릇된 신학에서 비롯 되고, 그릇된 신학은 그릇된 성경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바른 성경관을 지니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성경은 신앙과 삶에서 뿐만 아니라 학문의 대상 영역에 있어서도 진리이다. Kant 같은 이들이 말하는 인간중심적 학문관은 인식이 주체의 한계와 역경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인간이성의 근본적인 제한성이 있기에 그것은 실재계를 그 근본에서나 궁극성에서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인간 논리와 실재는 엄밀 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이다. 또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 사상의 합성 물로 보는 그릇된 신학도 진정한 기독교 학문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없 는 것이다.

셋째, 성경을 학문 체계의 직접적 내지 원리적 기초로 삼아야 한다. 성경 은 하나님의 진리의 유일하면서도 온전한 근원이요,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지닌다. Calvin에 의하면 “하나님은 결코 날로 하늘로부터 말씀하지 않으신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공포되어 알려지기를 바란 곳은 오직 성경뿐이다”고 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알아서 필요하고 유익한 것 중 누락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그 속에 가르쳐진 것 중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도 전혀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보고(寶庫)이며, 하나

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한 최선의 처방으로 주셨다. 이런 성경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Augustine과 Luther, 그리고 Calvin이 제시한 바대로 성경 자체가 스스로 하는 해석(Sacra 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이 되어야 한다.

넷째, 신앙과 신앙적 이성, 그리고 성령의 지도를 ‘학문함’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신앙과 신앙적 인식도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성과 같은 생래적 은사가 아니고 특별한 은사이다. 신앙은 인간의 본성에 출발 근거를 갖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출발점을 갖는다. 이러한 신앙의 인식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이다. 이 확신도 이성의 합리적 논증에 의한 지적인 확신이 아니라 성령의 설득에 의해 일어나는 가슴의 확신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신앙을 주셔서 심령의 확증과 지각의 조명을 주셨다. 그 가운데서 Calvin은 심령의 확증을 더 중시하였다. 왜냐하면 심령의 확증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지적 신앙보다 참된 실천과 삶으로 직결되는 신앙을 가르쳤다. Calvin에 의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어떤 차가운 사변 속에 자리잡고 있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요청한다.” 학문에 있어서 이런 신앙의 인식은 애성처럼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시인 성경을 수용하는 것으로의 인식이다. 신앙 인식의 내용은 성경 진리이다. 말하자면 발견의 인식이 아니라 순종과 청종의 인식이다. 그래서 Calvin은 우리가 이성으로 말씀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되고 이성이 말씀의 수종자로 겸비해져야 한다고 했다.

다섯째, 기독교 학문은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므로 인간에게 바른 지식을 갖게 해 주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지성을 지닌 homo sapiens이고, 이런 지성으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부단한 물음을 던지고 답변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진리와 참지식은 하나님에게만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어떤 진리를 찾을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설령 불신자 학자가 어떤 과학적 내지 논리적 이론을 지식으로 정립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진리인 것이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마치 광부처럼 하나님께서 지상에 감추어 두신 진리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찾아내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불신자가 설령 어떤 단편적인 진리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근본과 의미를 모르고 그 궁극적인 성격에 대해서도 무지하므로 그것이 온전한 진리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기독교 학문이 바로 찾고 또 바르게 그 근본과 뜻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선도적으로 주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식의 파편들과 혼란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기독교 학문은 그 방향과 결과가 성경적 지침, 즉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이웃에 대한 봉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일반 학문은 대체로 어떤 뚜렷한 방향과 결과가 없다. 그것이 어떤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곧장 이데올로기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대부분의 학문연구는 어떤 지적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든지 아니면 인류문화의 발달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움직여졌던 것이다. 일반 학자들의 학문연구는 대부분 자기만족에 그치든지 자기욕망과 이기적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결국 인본주의의 바벨탑 건설이 그 궁극적 지향점인 것이다. 학문의 목적이 이런 방향으로 흐를 때 그것은 인간 욕망성취의 수단이 되거나 집단적 이기주의와 같은 그릇된 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이 되고 만다. 그 때 학문은 평화와 공존을 이루기보다 불화와 경쟁을 일으킬 뿐인 것이다. 기독교 학문만이 학문을 고귀하게 하고 영원하게 한다. 그리고 영원하고 진정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한다.

Ⅶ 기독교 학문의 과제와 기독교인의 지성적 사명

우리는 이제 이 글의 마지막 단락에 이르렀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는 우리가 기독교 학문에 대해서 가지는 사명을 얘기해 보고, 그것이 어떠

한 과제를 지니고 있는지를 간략히 논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바르게 학문하는 것이 일종의 예배적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학문행위가 문자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학문도 하나님을 위한 다른 모든 영역의 행위처럼 광의적 의미에서 하나의 예배라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고전 10:31)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 의미에서 학문함은 일종의 영적 행위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기본하여 학문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학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학문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성령의 도움 가운데서 하고 그 결과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표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학문함과 학문의 영성은 학문이 갖는 논리성이나 합리성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둘째로 성경적 원리와 기독교적 정신을 따라 사유하고 또 사유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성을 포기하거나 또 신앙과 지성이 대립된다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기독교적 사유와 지성을 버리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세속지성을 추종하게 되고 바벨탑적 두뇌를 가지게 된다.

J. I. Packer는 「근본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복음주의자는 사실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실들이 하나님의 사실들임을 알기 때문이다. 또한 복음주의자는 사고하는 것(thinking)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이며 올바른 사고는 참된 신앙을 위태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음주의자는 그의 감성이나 의지 뿐만 아니라 지성(知性)을 다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적 신앙의 지적인 타당성과 그와 상반되는 이념의 비타당성을 비교적으로 보여 주는 일을 과제로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수행하는 것은 자기정당화나

합리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진리를 위해서이다. 사실 하나님과 그의 계시적 진리에 대한 견고한 신앙을 잘 보여 주는 확실있는 지성주의(知性主義)는 역사적 복음주의의 전통이다. 만일 우리들이 이것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의 원칙은 물론 아름다운 전통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의 영역 속에서도 참신자가 되어야 하고 학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해야 한다.

아테네에서는 헬라인처럼 행동하고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이중적인 모습은 고쳐가야 한다. 각기 다른 공동체에서 다르게 살지 말고 같은 신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셋째, 우리는 신앙과 학문, 그리고 삶의 통합을 이룩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학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학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신앙이 삶과 연결되지 않을 때는 죽은 신앙이듯이, 학문도 우리의 의식과 언어, 행위, 삶과 결부되어야 한다. 우리는 학문을 대학에서만 해서는 안된다. 대학에서 바로 배우고 익힌 대로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야 한다. 삶과 유리된 학문은 무기력하고 현학적이며 또 추상적 두뇌 놀이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학문운동은 기독교 문화, 윤리, 사회운동으로 뻗어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개인적 삶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대학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공동생활하면서 가르치고 배울 때 바른 기독교 학문운동이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실천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면 학문성이 결여될 수 있고, 또 쉽게 이데올로기화될 수도 있다. 하버튼 성경(요일 1-2장)은 우리가 진리를 알 뿐 아니라 진리를 행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Schaeffer박사는 우리 성도의 삶을 가리켜 “최종적 변증”(final apologetics)이라고 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요 5:16)고 하셨다.

넷째, 기독 지성인들은 학문영역에서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학문을 하며 기독교 학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적 원리에 기초한 바른 학문을 개발하고 촉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학자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 학문을 한다고 도피적이거나 원리적인 차원에서만 머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변증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우리의 학문도 논리적으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담대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기독교 학문운동을 전개할 때는 학자간, 학제간, 그리고 다른 복음운동과 공동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먼저 학자들 상호간에는 각 학문 분야별로 학회 등을 조직하든지 아니면 공동적인 프로젝트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힘으로 나타나야 이 시대 지성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학문 분야들도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길로만 치닫지 말고 학제적 연구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관성 있고 전체적인 조화가 이뤄지는 연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 학문운동은 교회와 기독교 학생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부단한 교류 속에서 전개될 때 실천적인 결실들이 맺히게 될 것이다. 기독교 학문운동은 그리스도를 위한 다양한 사역의 일부분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방향이나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긴 하지만 선교와 같은 다른 운동 등과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특히 이것은 경건과 영성운동과 함께 이뤄져야 결실로 가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롬 12:2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에서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τη ἀνακαινώσει του νοός)라는 것도 ‘지성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뜻이 된다. 우리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통하여 지성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운동을 할 때에는 신앙과 삶의 통합을 주장하듯이, 기독교 학문에 있어서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신앙이 삶과 연결되지 않을 때 그것은 죽은 신앙이 되듯이, 학문이 계시와 신앙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을 때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거짓된 학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학문에서도 고백하며 또

그것을 실현하는자들이다.



■ 전광식 ■

대구, 부산에서 신학, 기독교 교육학(고신대 MA), 철학 공부, 독일 Regensburg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Ph. D.), München대학, Oxford대학에서 고대 서양철학, 근세독일 관념론 공부. 현 고신대 철학 및 기독교철학 교수로 재직. 저서로 「서구황혼에 대한 세가지 생각」,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서편제」(공저), 「마르크스주의 이후의 철학」 외 다수.